

일본의 수산물 소비, 연령대별 선호 다양화

■ 일본 농림수산업성, 2007년도 일본 수산물 소비 조사 결과 발표

- 일본 수산청은 2007년 8월~9월 한달 동안 식품소비모니터 요원(1,021명)을 대상으로 수산물 소비 실태에 대해 조사,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 일본에서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생선소비 기피'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조사는 국민의 식생활 균형이라는 점에서 일본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음
 - 조사는 소비형태를 가정내 조리를 통한 섭취(내식), 가정내 반조리·완전조리식품의 섭취(중식), 외식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조사하였음
-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식문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또한 양국간 수산물 무역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일본의 조사 결과는 국내의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임

■ 수산물, 낮은 연령대보다 높은 연령대가 선호

- 매일 식사할 때 수산물과 육류를 먹는 빈도는 어느 쪽이 많은가에 대해 '수산물을 육류와 비슷한 수준으로 먹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중이 28%로 가장 많았는데
 -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의 경우 수산물보다 육류 선호도가 많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수산물 선호도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수산물 선호도의 비중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져, 20세대와 70세대 사이에는 50% 이상의 격차가 나타났음
-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육류보다 수산물을 먹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가 육류보다 수산물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녀가 좋아하는 요리에 대해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회·샐러드'가 전체의 80%로 가장 많았으며 '구이'가 78%, '초밥'이 73%를 차지하였음
 - 반면 일상적으로 육류를 먹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어개요리 보다 육류를 선호한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수산물은 뼈를 제거해야 하는 등 먹기 힘들기 때문'이다와 '육류를 좋아하니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61%, 58%로 가장 많았음

■ 수산물 소비 확대, 가격 인하와 정보 전달이 관건

- 앞으로 식사시 수산물 요리를 먹는 빈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가 '늘리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산물 소비를 기피하는 성향이 강한 20~40대의 젊은 층에서도 '늘리고 싶다'는 사람의 비중이 높았음
- 현재 수산물 소비 기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수산물 섭취 빈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가공·유통 현장에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66%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수산물의 조리·보존방법과 맛있는 섭취방법에 대한 정보 전달'이 57%였는데, 연령이 낮아질수록 답변한 사람의 비중이 높아 젊은 세대의 수산물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수산물 선도를 보다 향상시킨다' 및 '자국산 수산물을 늘린다' 라고 답변한 사람의 비중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았음
- 즉, 수산물 소비를 선호하는 연령대가 높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볼 때 먹는 기회가 많은 사람일수록 수산물의 품질 및 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외식 수산물 소비, 청년층의 선호 증가

- 한편 외식 수산물의 소비와 관련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대표적 외식형태인 초밥을 내세워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외식으로 초밥을 먹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2~3개월에 1번', '월 1회'가 각각 32%, 25%를 차지하였음
 - 초밥집을 이용하는 경우 누구와 주로 방문하는가에 대해서는 '가족'이라고 답한 사람이 8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초밥집을 이용하는 빈도가 5년 전과 비교해 '늘었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상회하였음
 -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에서는 '늘었다'는 응답자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앞서 젊은 세대의 관련 요리법 등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본 내 젊은 세대의 경우 별도의 노력이 필요치 않은 외식 수산물에 대한 선호는 높은 편으로 추정됨

■ 조리 또는 반조리 제품, 가격·선호도·선도가 구매 결정 요인

- 가정 내에서 수산물을 사용한 조리 또는 반조리 제품을 먹는 빈도는 '2주 1회' 이상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연령이 올라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수산물을 사용한 조리 또는 반조리 제품을 구입할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구입여부를 결정하는가에 대해(복수응답) '가격', '선호도', '선도'라는 응답자의 각각 77%, 71%, 62%를 차지하였음
 - 연령별로는 '가격', '그날 기분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선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람의 비중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음

■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 '가격이 비싸다'

- 수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복수응답)에 대해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중이 55%로 가장 높고,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먹을 수가 없다'가 34%였음
 - 연령별로는 '가격이 높다'를 떠올리는 사람이 모든 연령에서 많았으며
 -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먹을 수가 없다' 및 '선도가 나쁘다' 등 수산물의 산지 및 품질을 꼽는 경우가 높아지는 성향을 보였음
 - 또한 20대 및 30대에서는 '요리의 레파토리가 적다', '조리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자의 비중도 높았음

【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 】

항 목	응답비중(%)
가격이 높음	55
지역산 수산물을 먹기 힘들	34
선도가 나쁨	28
요리의 레파토리가 적음	27
조리방법을 모름	25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을 먹지 못함	24
지나치게 많이 잡고 있음	23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없음	20
수산물을 이용한 반찬, 도시락 종류가 적음	18
바로 조리할 수 있는 형태나 바로 먹기 힘들	18
인근에 수산물 판매점이 없음	9
기 타	14

■ 일본의 수산물 소비, 연령대별 선호 다양화

- 결과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관심 및 수요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에 모니터링 조사는 향후 공급비용을 축소하는 노력 이외에도 연령에 대한 선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발견 및 감동을 전해주는 동시에 새로운 수요 개척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 이를 위해서는 연령이 낮은 세대에 대해 대면판매 및 인터넷을 통한 조리방법·요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령이 높은 세대에 대해서는 품질 및 선도가 좋은 지역산 수산물 공급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음

<임경희, imkh@kmi.re.kr>